

# IPA, 4/4분기 가격상승 시동!

## Nippon Oil, Propylene 공급 차질 ... 750-800원에 약상승

일본 Nippon-Oil과 Mitsui Chemicals의 가동중단으로 9월부터는 국내 IPA(Isopropyl Alcohol) 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IPA업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Nippon-Oil이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면서 Propylene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Mitsui Chemicals는 IPA마저 생산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1만톤 가량의 IPA를 수입하는 국내시장에서도 벌써부터 IPA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내 IPA 총수요는 2003년 3만6000-4만톤 수준으로 국내 유일의 IPA 메이커인 LG화학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Condea, Shell, Tokuyama Soda 및 NPC에서 수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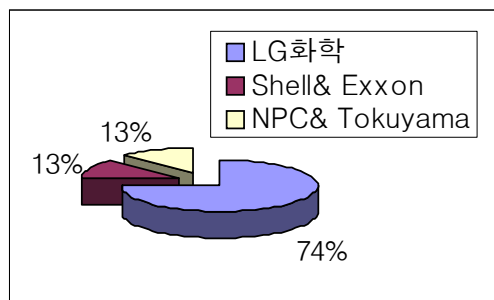
LG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Mitsui Chemicals의 IPA 공급차질은 일본 내수시장 전반의 공급차질로 이어지고, 결국 NPC와 Tokuyama Chemicals에 일부 의존하고 있는 국내 IPA 수급도 연쇄적인 차질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NPC에서 IPA를 수입하고 있는 기한무역 관계자는 IPA 수입이 2002년 3500톤에서 2003년에는 30% 감소한 2500톤으로 축소됐으나 일본 자체 내수시장의 수급차질이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Tokuyama Soda 제품을 수입하는 삼영무역은 9월분 IPA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가격인상은 예고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SK, 삼영무역 등 무역상사들은 IPA 시장이 생산기업이 아닌 수입기업에 의해 가격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이커인 LG화학, Condea, Shell 등의 가격인상 움직임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IPA 시장점유율(2003)



SK 관계자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량은 한해 5000톤 이하로 일본의 IPA 생산차질이 국내가격 상승요인으로 부족하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실제 국내수급 차질까지 빚어지지 않는더라도 가격상승을 유도할 심리적 압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결국, 국제가격에 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화학제품 가격 특성 상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Shell, Condea 등 외국 공급기업과 국내 생산기업인 LG화학의 가격상승 요구는 IPA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9월 IPA 가격은 8월 거래가격인 kg당 750-800원보다는 일정 폭 상승할 전망이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08/25>